

관광·문화 등 20년 우정 쌓은 '라오핑유'

(오랜 친구)



지난 1월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저장성음악청에서 열린 전남도·중국 저장성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전남도립국악단 신춘음악회에서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리웨이닝 저장성 비서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꽃이 한 송이만 핀 것으로는 아직 봄이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피야 진정한 봄이다.” (花獨放不是春 百花齊放春滿園) 일화 독방불시춘 백화제방춘만원)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동에서 인용한 중국 고전 글귀다.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해 각양각색의 꽃을 활짝 피우자는 여망을 담은 인용으로 해석됐다.

이 글귀는 올해 초 중국 저장성을 방문한 이재영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인용했다. 지난 20년 교류 역사에 더해 앞으로 20년도 다양한 분야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바람을 전한 것이다.

◇전남도-저장성 20년 우정=전남도와 중국 저장성이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았다. 위안자전(袁家軍·56) 성장 등 저장성 대표단 50여명이 전남도를 방문, 교류·협력 공동실천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양측의 전통예술단 공연도 펼쳐진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위안자전 저장성장은 24일 고위급 회담을 열고, 우호교류심화 실천협약서에 서명한다.

전남도와 저장성은 20년간 우정을 쌓은 '라오핑유' (오랜 친구·老朋友)다.

전남도와 저장성이 인연을 맺은 것은 1993년 11월 10일이다. 당시 이근범 전남지사가 저장성을 방문해 우호교류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4년이 지난 1998년 5월 16일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리고 2005년 7월 시진핑 당서기가 전남도를 방문하는 등 교류는 풍성해졌고, 지난해 사드 여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교류는 이어졌다.

전남도는 13개국 33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고 있다.

이 중 저장성은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내 첫 자매결연 지방정부라는데 의미

전남도-중국 저장성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 도지사·성장급 교류 13회, 청소년 교류·한중포럼 19회
- 지형 특성 활용 섬 개발...해양수산 등 교류 강화
- 이낙연 총리·시진핑 주석 국가 지도자 배출 공통점
- 저장성에 스파덱스 공장 등 5개 법인 운영 효성과 인연

가 남다르다.

20년 우정을 쌓아오는 동안 도지사나 성장, 당시기급 교류만도 13차례 이뤄졌고, 흡스태이를 통한 청소년 교류와 한중포럼도 각각 19차례 진행됐다. 공무원 교류도 활발해 그동안 35명의 공직자들이 교차 근무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저장성 농업청 간의 교류도 1995년 6월 이후 해마다 한 두 차례씩 꼬박꼬박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의 화와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전남도교육청과 저장성교육청, 전남경찰청과 저장성공안청, 광주전남연구원과 저장성사회과학원 등 기관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

저장성과 전남도는 지형적으로 닮았다. 산과 구릉이 많고,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해안선이 가장 길고, 섬이 가장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같은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섬개발 등 관광·문화·해양수산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를 배출한 점도 공통점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이낙연 국무총리다. 시 주석은 정치적으로는 '상하이 인맥'으로 통하지만, 성장과 당서기를 모두 지난 유일한 곳이고, 시진핑호(號)의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인 '저장모델'이 태동한 곳

이라는 점에서 저장성은 그의 정치적 기반이자 고향으로 통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와 저장성은 1998년 자매결연을 맺은 뒤 20년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며 "경제·문화·예술·교육·청소년·해양수산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와 저장성은 지난 1월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향후 ▲한국전력공사-알리바바 경제포럼 ▲이세돌-커제 바둑대국 등 청소년 스포츠 교류 ▲예술단 상호 방문 ▲전남도-저장성 상호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두 지역 관광객 교차 방문 등에 협력·지원하기로 하는 공동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저장성과 효성그룹 인연=저장성이 전남도와 20년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저장성과 국내 대기업인 효성그룹과의 관계도 주목되고 있다.

효성그룹은 지난 2000년 저장성 가흥시에 스파덱스 공장을 설립한 이래 취조우시와 가흥시 등에서 스파덱스, 타이어코드, 스티르크, 나일론 필름, 변압기, ATM 등의 사업분야에 5개 제조법인을 운영 중이다. 저장성 내 5개 법인에 투자된 누계 금액

은 9억8000만불에 달한다. 지난해 매출액은 14억불을 달성했고, 올해 매출액은 9억불이 예상된다. 저장성 내 5개 공장에는 총 2500여명의 현지 인원이 고용돼 저장성 내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가흥화섬과 가흥화공 등 3개 법인에서 5건의 증설 투자 건이 진행 중이다. 효성그룹은 저장성을 비롯해 중국 광둥과 청도, 남퉁 등에서 15개 제조법인을 운영 중이며, 북경과 상해, 광저우에 3개 무역지사를 운영 중이다.

위안자전 저장성장 등 정부 대표단이 24일 '20년 우정'을 맺은 전남도를 방문한 데 이어 25일 효성그룹을 방문한데는 이같은 효성그룹의 저장성 정부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005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한국 방문길에 효성그룹 본사를 방문했다. 당시 저장성 당서기였던 시진핑 주석은 바쁜 일정에도 효성그룹을 방문했으며, 이후 꾸준히 효성의 투자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효성그룹은 1957년 설립돼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정보통신, 무역 등 7개 사업영역과 (주)효성, 효성티앤씨(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중공업(주), 효성화학(주) 등 계열사로 구성된 글로벌 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총 자산은 125억불, 총매출액 120억불이다.

효성그룹은 한국을 비롯, 중국과 베트남, 인도, 터키, 브라질, 미국 등 전 세계 37개 제조법인과 12개 무역법인, 21개 무역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 중인 스파덱스, 타이어 코드 등 폴리프로필렌, 변압기, 차단기, ATM, LED 등 산업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별 특성맞는 매뉴얼 마련 농어민·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슈퍼 폭염' 시대

<4>폭염 대책 마련 시급

역대급 폭염이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어촌과 도시, 취약계층과 중산층 이상, 도시 내 폭염 취약시설과 대중이용시설 등 공간과 계층에 따라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살인적인 더위에도 실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어민, 도시 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폭염 노출 줄이고 대응력 키워야=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허덕이고 있는 전남도내 농어촌 지역은 폭염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여름 농사철에 70~80대 노인들의 노동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운열에 의한 사망이나 입원 사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귀농·귀어·귀촌 지원을 통한 노동력 확보, 가뭄 대비 수원 증설, 단기적으로는 무더위 쉼터 곳곳 설치, 영농·영어 기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뭄, 병충해, 집단폐사, 작조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폭염으로 인한 농수축산물의 피해가 고스란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도시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농수축산물 유통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아파트, 자동차 등이 급증하면서 열기를 내뿜는 도시의 경우 나무, 흙 등 자연 자원의 배치와 그늘막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영세민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오염, 미세먼지, 도심 열섬 현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도시공간계획을 대폭 수정·보완할 필요성도 있다.

◇지역별 특성 고려한 매뉴얼 마련해야=폭염일수 36일로 최장 기록을 갱신하는 하반기 폭염이 자연재해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행력을 갖춘 맞춤형 폭염대응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폭염을 상시훈련 계획에 반영해 폭염대응 협의부와 유관기관 등이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폭염에 선제 대응한다는 것

열섬 예방 도시계획 수정을 안전교육·대응훈련 정례화

전기세 누진제 재검토 해 폭염따른 국민부담 줄여야

이다.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등 폭염취약 계층별 매뉴얼도 소관별로 제작한다.

매뉴얼에는 폭염 대비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폭염대응 훈련은 물론, 최소한의 폭염저감시설 등을 비치 또는 설치하도록 계획이다. 또 매뉴얼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훈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해 지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재난전문가를 초빙해 재난안전교육을 정례화하고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민 아니라 5개 자치구, 전남도와 22개 시·군도 별도의 폭염대응매뉴얼을 제작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세 누진제 재검토 등 폭염에 따른 국민 부담 줄여야=재난에 가까운 폭염으로 각종 무더위 기록을 경신하자 올해 정부는 당초 취약계층에 한정됐던 누진제 완화를 모든 가정에 적용한 바 있다.

여름철 폭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누진제 폐지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누진제 폐지, 전기세 동결 또는 인하 등이 한국전력의 매출과 직결되고 있어 정부로서는 난감한 처지다.

전기세 이외에도 농어촌에 대한 관정·관수시설 설치 지원, 농수축산물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도시공간 개선 지원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지자체와 최근 폭염 대책 회의를 갖고, 온열질환 사망자의 정확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이 폭염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미 부과, 고령자·산자 등 산간지역의 발달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 지원, 피해과수에 대한 수매 지원, 축사 냉방시설 지원 범위 확대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끝>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